

곡성군, 마을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로 채운다

11월까지 주민 생활 공간서 운영 유랑음악다방·고전 영화 상영 등 섬진강변 배경 드로잉 퍼포먼스도

곡성군이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주요 생활 공간과 관광객 방문 거점을 중심으로 기획돼 누구나 자연스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군은 최근 곡성읍 신기리2구 마을회관 앞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연인 유랑음악다방 ‘나의 살던 고향은’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공연은 변사극과 아코디언 연주, 추억의 옛 노래 재창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평소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을 채택해 문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의 향연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오는 20일에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1960년대 흑백영화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김약국의 딸들’ 공동체 상영이 진행된다.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이번 작품은 한국영상자료원의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쳐 더욱 선명한 화질로 관람객과 만난다.

곡성군은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옛 추억과 향수를 선사하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 거점인 작은영화관의 활용도를 높여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삼한시대 곡성: 문화골

독짓기’와 드로잉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문화로운 기억’ 프로그램이 야영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삼한시대 흙을 활용해 굴뚝과 토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섬진강변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즉석 드로잉 퍼포먼스를 감상하며 곡성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다.

이밖에 군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며 생활밀착형 문화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주민들의 소박한 생활 공간이 살아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기 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5월 문화 프로그램의 상세 일정과 구체적인 소개는 곡성군이 발행하는 문화·예술·교육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 채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받을 수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연흥도...체류형 관광 ‘시동’

도 ‘섬섬 걸을래’ 공모사업 선정 예술·치유 결합 프로그램 운영 섬 주민들 마을 해설사 참여도

고흥 연흥도가 전남도 주관 ‘2026 섬섬 걸을래’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체류형 섬 관광지로써의 입지를 다지게 됐다.

11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2026 전남 섬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걷기여행 프로그램을 발굴

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흥 연흥도는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독보적인 예술적 감성과 수려한 해양 경관을 활용한 감성형 체류 콘텐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업 대상지로 낙점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연흥도 일원에서 걷기와 예술, 치유, 지역 먹거리 체험을 결합한 융복합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섬 주민들이 직접 마을 해설사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한다.

또한 연흥도를 중심으로 녹동항과 거금도권 등 주변 관광 거점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계해 관광객들이 고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 식당과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이끌어낼 구상이다.

고흥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연흥도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감성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조화시켜 머물수록 매력이 넘치는 섬 관광 모델을 선보이겠다”며 “앞으로도 고흥의 다채로운 섬 자원을 활용해 전남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키워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화순군, 태양광 벽부등 설치 ‘안전 귀갓길’ 조성

케이워티기술 봉사단 협력

화순군은 “최근 케이워티기술㈜ 영·섬유역 본부 및 전남중부권사업소 기업봉사단과 합동으로 가로등 시설이 부족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벽부등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순군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간 보행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6개 읍·면,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봉사에는 이한기 본부장을 포함한 기업봉사단 8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동면과 사평면 내

4개 마을을 순회하며 총 80개의 태양광 벽부등을 직접 설치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탰다. <사진>

군은 올해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기기를 우선 교체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벽부등 100개를 추가로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봉섭 기종정책실장은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준 기업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6개 분과 활동

제10기 참여위원 60명 위촉

여수시는 11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지역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1부 위촉식에서는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별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어 열린 2부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는 예산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다.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비롯해 우수사례 소개, 사업제안서 작성 및 검토, 사업 선정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마련됐다.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4월27일부터 2028년 4월26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행정지원, 문화관광·해양, 복지·환경, 보건·상수도, 농업, 도시건설·교통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위원 구성은 읍·면·동 지역회의의 추천과 공개 모집, 각종 단체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보성군, AI·IoT 활용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65세 이상 190명 선정

보성군이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나선다.

11일 보성군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기기와 모바일 앱 ‘오늘 건강’을 결합한 비대면 보건 서비스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등 블루투스 건강측정기기가 제공되며, 측정된 데이터는 앱을 통해 보건소로 실시간 전송돼 제

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행태 분석 등을 진행해 최종 190명을 선정했다. <사진>

대상자들은 앞으로 6개월간 개인별 건강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상담과 건강 미션 수행 등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건소 전문인력은 전송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혈압·혈당 관리 등 개인별 상태에 맞춘 교육을 지원한다.

참여자 스스로 건강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통해 일상 속 건강 실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을 접



목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공 보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순천 풍덕동, 16일 ‘제5회 장미축제’ 개최

야간 조명·DJ 공연 등 로맨틱 연출

순천시 풍덕동이 5월의 여왕 장미와 함께 시민들에게 일상 속 사랑과 여유를 전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16일 풍덕동 장미터널 일원에서 ‘제5회 풍덕동 장미축제’를 개최한다. ‘Love Rose Festa,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낮에는 화사하게 핀 장미 사이를 거닐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밤에는 은은한 조명과 스피셜 DJ 공연이 어우러진 야간경관을 통해 로맨틱

한 분위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오감으로 만끽하는 장미터널 스탬프 투어를 비롯해 로즈도슨트, 장미빛 인생상담소, 로즈바 등 풍덕동민의 개성을 담은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플라마켓과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가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일상 속에서 사랑과 여유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이 풍덕동을 찾아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양홍철 기자

장흥 유치면 신풍마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선정

주민 주도 유치면주민협동조합

일자리 창출·돌봄기금 조성 등

장흥군 유치면 신풍1리가 전통 발효 식품을 기반으로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모델 구축에 나선다.

11일 장흥군농어촌신활력센터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 설립한 ‘유치면주민협동조합’이 최근 ‘2026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장흥읍 건설 등 환경 변화 속에서 마을 정체성을 지켜온 주민들이 전통 장(醬) 문화와 발효 기술을 소독원과 결합해 마을 기업을 준비해온 결실이다.

조합은 앞으로 ‘신풍발효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자생력을 갖춘 마

을기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생산·판매를 넘어 마을 내 경제 선순환에 방점을 뒀으며, 주민 시간제 일자리 창출, 수익 일부를 활용한 ‘마을 돌봄기금’ 조성,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통한 소농 보호 등 공동체 기능 회복을 함께 추진한다.

마경구 유치면주민협동조합 대표는 “발효식품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마을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돌봄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배경선 군농어촌신활력센터 센터장은 “이번 사례는 고령화된 농촌 마을도 충분히 새로운 경제 모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철 기자